전남 보성 선소마을

정 준 호
(사)한국수산생물자원연구협회 총무이사

어촌체험마을은
그 성격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결집하는
과정논리를 띠고 있다.

Ⅰ. 선소 마을이 어촌 체험마을로 개발된 배경

1. 어촌체험마을 선정이유

어촌체험마을 개발은 잘사는 어촌, 깨끗한 어촌을 만들어 어촌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수준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쇠퇴하는 수산업에 대한 대체 소득원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소마을은 득량만의 청정해역과 이를 감싸는 구릉으로 형성된 아늑한 자연환경과 수산업과 농업이 함께하는 산업여건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농어촌 생태환경체험에 대한 선호도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근처의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관광지로 보성군과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였다.

2. 자연환경

보성군은 소백산맥의 두 지맥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두 지맥을 사이로 보성강이 흐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은 편(64.2%)

〈녹차밭 체험〉

이며 보성강유역과 남해안 일대에 평지가 나타나고 있다. 보성강은 섬진강 지류로서 북쪽의 내륙 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남해로는 벌교천, 칠동천, 조성천 등 여러 개의 하천이 흐르고 이를 관개용수와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성군은 재배가 까다로운 차 생산 적지로서 일제시대부터 보성읍과 회천면의 경계지점인 봇재 일원에 대규모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3. 관광자원

보성군 내에는 율포해수욕장, 녹차밭(다원), 제암산, 서재필박사 기념공원, 최대성 유적지, 공룡알 화석지 및 박물관, 대원사내의 티벳박물관, 일일레저타운 등이 보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문자원에 속하는 해수녹차탕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향후 국민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른 SIT(Special Interest Tourism)의 소재가 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역사 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벌교지역 관련 유적지 등은 보성군이 보유한 인문자원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가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촌체험 마을은 보성군 해안선을 중심으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해관광벨트사업에 따른 해안도로가 직접 마을을 통과하고 국도 2호선과 근접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입지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좋은 갯벌이 풍부한 곳으로 체험학습의 주요 내용인 어업체험 어촌생활체험 등의 활용도에 있어서 적지이다. 그 체험 내용에는 선소 청암지역에 발달한 밭작물(쪽파, 감자, 옥수수 등) 재배체험과 선소항의 공룡화석지 학습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갯벌의 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 조성도 양호하다.

Ⅱ. 컨설팅 진행과정

1. 관련기관 및 단체 협조

2007년 6월 1일자로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선소 어촌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로 위촉받아 활동을 시작하여 관련기관(보성군, 득량면, 고흥수협 등) 협조와 인사 그리고 마을현황, 그동안의 투자실적, 체험어장 관리 및 주변 환경여건, 홍보체계 등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체험어장을 이용관리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적·제도적인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파악·분석하였다.

2. 컨설팅 세부추진 계획수립

컨설팅계획은 크게 자원 발굴, 프로그램개발, 홍보 및 마케팅개발, 마을주민갈등관리, 정보화 운영 능력 배양 등 주민교육 그리고 공정계획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자원발굴은 득량만 방조제에서 바라보는 득량만 갯벌광경, 득량만 방조제 내 갈대숲 생태공원과 연계, 자연자원인 율포해수욕장, 녹차밭(다원), 제암산, 자연휴양림인 일림산 철쭉 군락지, 인문자원인 율포해수녹차탕, 해수풀장, 보성다비치 콘도미니엄, 문화역사자원인 서재필선생기념공원,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 무대 관련 유적지, 최대성장군 유적지 등

둘째, 프로그램개발은 어업체험(체험학습)은 건간망(개막이) 등 정치성 어업견학, 농업체험(체험학습)은 쪽

파, 옥수수, 감자종자심기 및 수확, 야외식물원관람(생태관광), 야생화원, 허브농장 등 관람, 하이킹 사이클링(건강육성)은 해안산책로 걷기, 자전거타기, 전시물 관람(체험학습, 건강육성)은 해수녹차탕, 다원방문, 공룡화석지공원 등 관람

셋째, 홍보 및 마케팅개발은 소비자들의 입이나 인터넷홍보와 이메일을 빌어 전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둔 바이러스성 마케팅(Virtual Marketing)을 한다. 어촌관광 혹은 바닷가 여행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학생단체(특히 수학여행) 및 직장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근지역의 초, 중, 고 학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성군 어촌체험관광마을의 웹사이트, 해양수산부 및 보성군, 수협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계

넷째,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인식제고, 갈등해소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가다운 자세를 정립하여 주민과 밀착접촉하고 정보화 운영능력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어촌정보화 사업과 연계 실시, 선진지 사례 등을 토론식으로 홍보

다섯째, 추진계획은 대상별 시기별로 행정기관(군, 면)과 유관기관 어촌계와 협의추진 함은 물론 당초 기본 설계계획에 맞추어서 실시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계획을 수립하였다.

3. 체험마을 운영상 문제점 발굴

전체사업의 다양성을 평가하여보면 어민들은 아직 관광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일천하여 경영성과도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또한 사업의 복잡화, 패키지화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단일형 위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따라서 계절적 요인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사회적 법적 재정적 제도(규모)적 측면은 체험어장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 관리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으로 확대 · 개발 등 다양한 편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기 지원된 사업비는 갯벌체험(기반시설)에 한정되므로 각종 고객편의시설을 구비하는데 부족

둘째, 생태환경, 음식문화 체험관광자원은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갯벌체험(생태관광, 체험학습, 해양 레크리에이션), 어업체험(건간망, 정치성어업견학), 유어선을 이용한 선상바다낚시, 음식체험, 어촌생활 체험, 야생허브가든, 야외식물원, 농업체험장 등 시설미비

셋째, 인적관리 측면인 내부갈등과 주민참여도 및 이해도 등은 어촌계장과 주민 2~3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행정당국에만 의존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 및 이해도가 부족하여 전체가구 56가구 중 수협조합원인 46가구만 참여

넷째, 팜플렛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미진, 녹차밭 · 공룡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홍보미진,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미진, 지역신문 및 지방일간지 게재미비 등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이 부족

다섯째, 상품화 및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낙지, 주꾸미, 꼬막, 전어, 숭어 등의 수산물이 생산되나 관광상품화 실적이 없으며 체험어장의 규모가 작고 연중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체험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름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 등 조경시설 부족으로 수익성 저조

4. 컨설팅 세부 실천 사항

〈주민 이해 설득〉

주민 접촉측면에서 선소마을 컨설팅은 먼저 어촌계장에게 컨설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고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추진위원(12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내용 및 정부의 추진의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관할 마을주민의 개인별 또는 회관 및 선착장, 공동작업장, 음식점 등에 모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대한 소개와 컨설팅전문가가 필요

〈갯벌 썰매를 이용한 채취 꼬막 운반〉

〈갯벌 체험 현장〉

한 이유 등을 주지시키고 어촌체험마을운영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며, 마을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가 소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 인사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민들 인식 제고 및 다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련 기관 및 단체 협조〉

관련기관의 대면 협조측면은 보성군 부군수, 관련부서장 면담과 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타산업(중소기업 등)과 같이 우리어촌에 대하여도 컨설팅 전문가를 파견하여 질적 · 양적으로 규모 있는 어촌경제 향상을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설명함과 아울러 관련 읍, 면,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당부하였으며, 관할 수산업협동조합과 면사무소에 대하여도 정부(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관내 관련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문제점 해결에 대한 적극적 협조부탁과 컨설팅 전문가의 이력 등을 자세히 이해토록 하였다.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어떻게 하면 선소 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를 증대시킬까 하는 고민 끝에 우선 타 지역 자연관광, 인문자원 등과 연계시키는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의 자연자원은 물론 역사성, 교육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교통망 등 외부 접근성을 고려한 고속도로, 국도(산업도로)와의 연계성, 인근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진주 등에서의 지역연계 교통편의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홍보마케팅의 극대화〉

홍보마케팅의 극대화 측면에서는 우선 내부적인 효과부터 극대화하고자 보성군을 통해 군 단위 각종 홍보자료(반상회 회보 등)를 읍면사무소 관할수협 등과 연계 홍보하는 방법을 협조당부 하였으며, 보성군 교육청을 방문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의 자연과학 실습 또는 체험학습 시 이용 가능토록 협조부탁과 선소어촌 체험마을 자체적으로 홍보용 리플렛 발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홍보 메시지를 이용하여 인근 관광지역에 배포하여 알리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성군 홈페이지 등재와 국내관광회사의 사이트와 접촉하여 알리는 방법(해양수산부와 일상탈출 카페가 함께하는 어촌 마을 찾아가기 선소마을 어촌체험여행) 등과 관련회사(장금상선(주) 대표 정태순) 자매결연과 홈페이지 등재협조로 회사원은 물론 자매결연 회사관련 기업체에서도 어촌체험 마을을 이용토록 협조한바 있다.

〈다른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체험어장에 대한 자원조성 문제와 자금(예산) 지원 문제는 어촌계장, 운영위원, 사무장등과 협의한 결과 자원조성 문제와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동안 정부(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손쉬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장흥해양수산사무소(소장 박형윤)와 장흥해양수산사무소 보성출장소(소장 김철중)와 협의, 우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확답을 받고 꾸준히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신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컨설팅 한 결과 2007년 상반기 까지는 우수공동체로서

공동체위원장이 선진국(일본) 연수를 하였으며, 2008년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예상된다.

〈갯벌체험 어장 운영〉

갯벌체험 어장 이용방법과 주변지역 환경정리는 우선 갯벌체험 어장운영은 구간을 설정 윤번제로 운영토록하고, 체험장 내 패류(바지락 등) 밀집지역을 고루 분산살포토록 하였으며, 입구도로 지형이 곡부로 되어있어서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이정표 설치와 입구안내판 도색 및 정비 그리고 사무장 상시근무에 따른 출입구 잠금장치 제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비 40백만원을 투입하여 체험어장 조경시설과 입구도로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정리, 바닷가 생활쓰레기 청소 3회 실시와 체험어장 바닥고르기 등을 실시하였다.

Ⅲ. 컨설팅 결과

1. 이용객 실태

선소체험어장 이용객은 일반인, 학생, 어린이, 가족단위로 인근 대도시를 비롯 전국에서 방문하여 인근의 서재필 기념공원 등 역사 유적지 체험, 보성 녹차밭 등 다원체험, 해수풀장 등 인문자원을 체험하였다. 방문은 주로 하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근 시·군 단위에서는 유아원의 어린이, 가족들이 갯벌체험을 실시하였다. 7~8월 2개월 동안 616명이 체험학습을 다녀갔고 총수입 3,314만원을 올렸는데 이는 체험어장을 시작한 2003년 년도 총수입 7백만원보다 417% 상승한 금액이다.

2. 체험마을 운영 실적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개장한 결과 공룡알 화석지 및 어촌풍경 등 체험어장 방문 및 체험시설 이용객수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성군 홍보자료

구 분		방문객수(명)	체험어장 이용객수(명)	관광수익(백만원)	
				운영매출액	순수익
체험마을 선정전(연평균)		400	-	-	-
체험마을 지정 후	2003	7,000	1,300	7	5
	2004	13,000	7,000	35	21
	2005	43,000	13,000	46	27
	2006	44,000	14,000	49	34

2007년도의 어촌체험어장의 이용실적을 보면 14,500명에 매출액 5천만원의 성과를 나타냈다.

3. 갯벌 체험 내용

갯벌체험은 준비실, 탈의실에서 복장을 갖춘 다음 조간대를 이용해 간조시 바다로 나가서 바지락, 낚시, 고둥줍기 등을 하는 체험인데 채취한 수산물은 체험자가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채취한 수산물을 육상의 체험어장 휴게실에서 음식(요리)이용 체험토록 한 프로그램이며 주변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체험은 갯벌체험 전후에 전통문화가 깃들어있는 녹차농장 다원, 죽녹원과 해수풀장, 공룡화석지, 사적지 등을 대상으로 찾아온 관광객을 안내 유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Ⅳ. 금후 컨설팅 진행 방향

1. 운영방침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지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적정한 자원 투입과 기술지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등이다.

어촌체험마을은 그 성격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결집하는 과정논리를 띠고 있으므로, 금후 어촌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개별요소들을 조직화하고 이를 공동의 목표로 실현 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2. 운영상 문제점 해결

첫째, 갯벌(간사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단종으로 갯벌체험 프로그램 계속 운영시 갯벌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병행 실시로 어장관리 · 조성기틀을 마련하고 체험어장에 구간을 설정 윤번제 실시토록 하여 바지락 산란기 체험어장 휴식제 실시 등 지속적인 종패(바지락)살포 및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매출액 일부분은 자원조성 자금으로 적립한다.

둘째, 체험 프로그램이 단조로워 사계절 지속적인 체험객 계속유치가 어려우며 겨울철에는 안전상 해상체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므로 주변 육상관광과 연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기존 프로그램 외에 사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관련법 저촉(문화재 보호법등) 및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 한정 및 고객편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보성군 주관으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사업취지 및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성군에서 확보하여 해안산책로 및 자전거산책로 시설과 갯벌체험시 채취한 수산물 음식체험장시설 및 탈의실을 시설토록 한다.

3. 사계절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시

가을철은 바다낚시 체험을 통한 일반인 및 동호인 회원을 대상으로 배 한척에 5~6명 정도 승선하여 4~5시간정도 선상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겨울철에는 일반인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선소마을의 비봉공룡박물관과 공룡화석지 관람을 마치고 야간의 썰물 때를 이용하여 횃불을 들고 갯벌이나 돌 밑에 살고 있는 게, 소라, 낚지, 고둥 등을 채취하는 야간 횃불갯벌체험을 실시한다.

봄에는 일반인 및 가족단위로 어선 한척 당 5명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선주가 사전 설치한 통발을 바다 속에서 끌어올려 통발속의 낚지, 소라, 새우, 게, 장어 등을 잡는 통발 낚시잡이 체험을 실시한다.

그 외 연중 갯벌체험과 선소마을 갯벌체험 후 인근 4km(십리)이내인 녹차밭 및 다원을 관광한 다음 지하 120m의 심해수를 이용한 해수녹차, 온천탕 등 관광휴양프로그램과 서재필 기념공원, 티벳박물관이 있는 대원사, 전남 남해 서부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림산, 제암산 등반 등 사적지관광 및 등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Ⅴ. 체험마을 이용관리에 대한 종합평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있지 않으며 지리적 여건상 벽지에 위치하여 여행의 거리시간상 체험어장 이용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없는 평상적인 유지정도만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지정운영과 컨설팅 전문가 운영을 하고 있어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의 권유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어촌체험 마을을 병행 실시하여, 2007년도 상반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실적 향상으로 공동체 운영위원장이 한국수산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국(일본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8년 우수자율관리공동체로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유력시 되고 있다.

선소체험마을은 대도시권과 거리 및 시간관계로 인해 하계휴가철을 제외하고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관련법 저촉(문화재 보호법) 및 기 지원된 사업비는 갯벌체험(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고객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태다.

관련 행정기관(보성군, 득량면) 및 단체(수협 등)에서는 컨설팅 전문가지정 운영과 사무장지정 운영으로 각종 정보전달은 물론 운영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